조선의 절경들과 유래



조선의 절경들과 유래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2(2013)년

차　　례

전설과 일화

머 리 말

조선은 그 어디에 가나 명승지들이 있어 예로부터 삼천리금수강산으로 소문났기때문에 관광대상이 많다.

태고적부터 자기 땅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조선인민은 아름다운 조국산천에 대한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가지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으며 그것을 대대로 전해왔다.

절경과 명소들에 깃들어있는 지명유래전설과 인민들의 애국심과 미풍량속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에는 근면하고 슬기로운 조선민족의 성격적기질과 지혜, 풍만한 정서가 그대로 비껴있다.

이 책에서는 력사적으로 전해내려오는 조선의 절경들과 그 지명유래와 거기에 깃들어있는 흥미있는 옛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선군시대에 태여난 새로운 절경들과 거기에 깃든 이야기들가운데서 대표적인것들을 소개한다.

1. 조선의 명산들과 유래

백두산

조선의 량강도 삼지연군의 북부에 위치하고있는 백두산은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으로서 그 웅장함과 장엄함에 있어서 다른 산들에서는 볼수 없는 특이한 경치를 이루고있어 예로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명산이다.

백두산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조선민족과 운명을 같이하며 동방일각에 거연히 솟아있다.

백두산은 장군봉(2 750m), 향도봉(2 712m), 쌍무지개봉(2 626m), 청석봉(2 662m), 백운봉(2 691m), 차일봉(2 596m) 등 2 500m 이상 되는 련봉들이 하늘로 치솟아있어 웅장할뿐아니라 백두산꼭대기에는 천지가 있어 매우 신비로운 산으로 간주되여왔다.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여겨왔다.

백두산을 조선의 명산, 조종의 산이라고 하는것은 백두산이 지질학적 및 지리학적으로 볼 때 조선의 모든 산과 산줄기의 근본, 시원을 이루고있기때문이다.

백두산은 백두대산줄기의 근본이고 시원이다.

장장 1 470㎞에 달하는 백두대산줄기는 백두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리산줄기의 끝점인 조선남해가의 구재봉 (경상남도 하동군)까지 줄기차게 뻗어내렸다.

17세기초엽 조선의 실학자 리수광은 《지봉류설》에서

《우리 나라의 모든 산은 다 백두산에서 시작된다. 백두산줄기는 마천령산줄기에서 철령을 거쳐 남으로 뻗어 금강산과 오대산, 태백산이 되였고 지리산에서 끝났다.》고 하면서 제주도의 한나산도 백두산줄기에 속한 산이라고 강조하였다.

백두산을 력대로 조선의 명산, 조종의 산이라고 한것은 다음으로 조선민족이 백두산을 국가의 발상지로, 민족의 넋이 깃들어있는 성산으로 간주하였기때문이다.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숭배하는 조선민족의 사상감정이 반영되여 조선의 력대국가들은 웅장한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해마다 제사지내는것을 관례화하였다.

백두산은 조선에서 조종의 산, 명산으로서뿐아니라 조선혁명의 성산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백두산은 20년간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산이며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의 억센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성장하신 고향이며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큰 뜻과 담력을 키우신 곳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에서 조국해방성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영웅남아다운 기질을 키우시였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주체혁명위업계승의 빛나는 력사를 펼치시였다.

백두산에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혁명업적이 아로새겨져있다.

이렇듯 백두산은 반만년의 유구한 조선민족사와 더불어 빛나는 민족의 성산이며 주체혁명위업이 개척되고 그 승리적전진을 담보하는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의 지명유래와 옛이름들

백두산이라는 이름은 사시장철 머리에 흰눈을 떠이고 솟은 산이라는데서 유래된것이다.

18세기에 편찬된 《동국명산기》라는 책에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그 산꼭대기가 마치 흰 독을 올려놓은것 같이 생겼다고 하여 붙여진것이라고 전하고있다.

조선에서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쓰이기 시작한것은 고려(918～1392)이전시기부터라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고려사》에 고려태조 왕건의 조상인 성골장군이 백두산을 유람하였다는 기록이 실린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고대에는 백두산이 《불함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는데 조선은 물론 옛중국에도 널리 알려져있었다.

중세에 들어와서는 백두산이라는 이름외에 《태백산》, 《도태산》, 《개마대산》, 《백산》, 《장백산》, 《상백산》 등 여러가지로 불리왔다.

이러한 이름들은 대체로 백두산이 하늘처럼 높고 신령스러운 흰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실례로 《태백산》, 《도태산》은 제일 높은 산, 하늘산이라는 뜻을 담고있으며 《장백산》, 《상백산》은 그 산마루에 일년내내 흰눈과 얼음이 덮여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있다.

백두산천지의 옛이름들

백두산천지는 원래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깊은 호수인것으로 하여 먼 옛적에는 《대택(큰 못)》으로 불리우다가 수백년전부터 천지라고 불러오고있다. 천지라는 말은 그 존재가 하늘처럼 성스럽고 높은 곳에 있는 못이라는데서 붙인 이름이다.

압록강과 두만강, 송화강 등 3대장강의 발원지이기도 한 천지는 깎아지른듯 한 절벽들을 성벽마냥 두르고 새파란 물에 백두련봉의 만물상을 비껴담은채 변화무쌍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것으로 하여 매우 인상적인 풍경을 이루고 있다.

조선의 선조들은 백두산천지의 이 신비한 조화를 반영하여 《대택》이나 《천지》외에도 《뢰택》, 《룡담》, 《신일》이라는 이름들을 써왔다.

《뢰택》은 천지의 거세찬 파도가 호반의 절벽들에 부딪칠 때마다 우뢰소리를 낸다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그리고 《룡담》, 《신일》은 천지부근에서 자주 목격하게 되는 강한 돌개바람—룡권현상으로부터 천지를 룡신이 사는 못이라 하여 붙인 이름들이다.

천지는 그 위용과 신비로움, 아름다운 호반풍치로 하여 예로부터 백두산과 더불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장군봉의 옛이름—병사봉

장군봉은 백두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로서 지난날에는 병사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왔다.

옛책인 《동국명산기》에 나오는 병사봉이라는 이름은

천지를 품에 안고 솟은 백두련봉에서 으뜸가는 봉우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늘날 조선인민은 백두산에 깃들어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이 봉우리를 장군봉으로 부르고있다.

명승 ㅡ 천평

천평은 백두산기슭의 밀림지역을 가리키던 옛이름이다. 옛문헌자료에 의하면 천평이란 말은 이곳의 지세가 대각봉과 연지봉, 선오산, 간백산, 소백산, 포태산과 관모봉 등을 사방에 끼고 수백리로 평평하게 뻗은데다가 수림이 울창한것이 하늘과 맞닿은 들판처럼 보인다는데로부터 유래된것이라고 한다.

천평은 아침이면 동쪽에서 해빛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일망무제한 밀림을 속속들이 물들이고 저녁에는 소백산쪽에서 피여난 안개가 숙연히 서리여드는 정경이 웅건하고 심오한 감흥을 자아내군하기때문에 예로부터 백두산특유의 명승으로 알려져있었다.

천평은 록용과 사향, 담비가죽,산삼을 비롯한 진귀한 물산이 많이 나는것으로 하여 더욱 이름이 높았다.

금강산

16세기 시인 정철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노래한 시 《관동별곡》에서 백천동을 돌아보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폭포의 아름다움과 장쾌함으로 귀가 멀고 눈이 부시다며 중국 려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리태백이 금강산을 돌아보면 려산이 금강산보다 낫다고 말하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군에 위치하고있는 금강산은 조선의 6대명산, 조선8경, 3신산의 하나로 불리워온 조선인민의 자랑이며 세계적인 명산이다.

1만 2천봉으로 불리우는 무수한 봉우리들이 천태만상의 기이한 모양을 이루고있고 깊은 골짜기로 흐르는 구슬같이 맑은 물과 장쾌한 폭포수가 아름답고 진귀한 동식물들과 서로 조화를 이룬 금강산의 신비경은 참으로 세계의 그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대자연의 기적이다.

하기에 오래전부터 《조선의 금강산을 보기 전에는 산수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라》는 말까지 생겨나게 되였다.

근세이후 금강산은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나라의 려행가, 등산가, 학자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되였다.

그들은 금강산을 탐승하고나서 한결같이 금강산을 《세계적명산》,《세계 제1의 승지》,《세계적인 자연공원》이라고 격찬하였다.

그중 몇가지 반향을 아래에 적어본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세계의 어느 명산의 아름다움도

초월하고있다.… 미의 모든 요소로 가득찬 이 대규모의 협곡은 너무나도 황홀하여 사람들을 마비시킬 정도이다.》

-19세기 영국의 이름난 녀성려행가 이자벨라 비쇼프-

《금강산의 웅대한 전경, 산체의 대담한 구성, 매달린 절벽, 아직 도끼질한 일이 없는 원시림, 순결한 폭포, 빨리 흐르는 여울과 깊은 소에서 나타나는 광선과 색채의 변화… 아아! 이 세상 그 어디에 이것과 비교할만한것이 있겠는가.》 -도이췰란드 려행가-

《야마계곡과 묘기산, 마쯔시마의 경승을 후지산밑에 모아놓더라도 아직 금강산의 절승과 겨루기에는 모자랄것이다.》 -일본인 기자-

금강산 8선녀 전설

옛날 금강산에 부지런하고 마음씨 고운 나무군총각이 살고있었다.

어느날 그는 사냥군에게 쫓기우는 사슴을 구원해주었다.

그후 나무군총각은 사슴의 도움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아름다운 선녀를 안해로 삼고 아들딸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데 자식 셋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수있는 날개옷을 주지 말라는 사슴의 말을 지키지 못하여 안해와 아이들과 헤여지게 되였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간 선녀는 아름다운 금강산에서 나무군총각을 만나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 다시 내려왔다고 한다…

이 전설은 금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신선들이 산다는 하늘세계에 비겨 지어낸 이야기로서 행복한 생활에 대한 옛날 사람들의 소박한 지향을 보여주고있다.

금강산의 지명유래

금강산의 이름은 보석가운데서도 가장 귀중한 금강석에 비유하여 붙인 이름이다.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그 경치가 새로와지므로 예로부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불리웠다. 봉래산은 금강산의 여름경치가 숲이 무성하고 그늘이 좋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고 풍악산은 가을에 만산에 단풍이 타는듯 아름다워서 붙인 이름이며 개골산은 겨울에 백설로 희게 단장된 산체가 그대로 드러나있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묘향산

조선의 평안북도 향산군에 위치하고있는 묘향산은 수려한 조각미와 웅장한 모습이 한데 어울려 절경을 이룬 명승으로서 예로부터 조선의 명산들중의 하나로 알려져왔다.

묘향산은 경치가 아름다울뿐아니라 보현사를 비롯한 수많은 력사유적유물들이 많고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운 인민들의 투쟁이야기와 가지가지의 전설들이 깃들어있어 유서깊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오늘 묘향산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일떠서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훌륭하게 꾸려져 내외에 널리 자랑떨치고있다.

주체68(1979)년 10월 15일 국제친선전람관의 로대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풍이 아름다운 묘향산의 가을경치를 부감하시면서《묘향산 가을날에》라는 즉흥시를 읊으시였다.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절경이야 태고부터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나래펴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만산에 붉은 단풍 가을마다 붉었으리
로동당 새 시대에 해빛도 찬란하니
단풍도 고와라 더욱 붉게 물들면서
산천에 수놓누나 이 나라 새 력사를

사대로 망국으로 수난도 많던 땅에
온 세계 친선사절 구름같이 찾아든다
5천년 력사국에 처음 꽃핀 이 자랑을
금수강산 더불어 후손만대 물려주리

묘향산의 지명유래

묘향산이라는 말은 모양이 기묘하고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이라는 뜻에서 불리워진 이름이다. 묘향산이 기묘하고 웅장한 모습을 가지게 된것은 이 일대의 지질 및 지형발달력사와 관련된다. 그리고 묘향산이 향기를 풍기는 아름다운 산으로 불리우게 된것은 이 일대에 목란꽃, 넓은잎정향나무, 누운향나무, 누운측백나무와 같이 향기가 좋

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기때문이다.

묘향산은 개척된 력사가 오래지만 11세기초부터 묘향산으로 불리웠다. 그전에는 연주고을에 속해있는 산이라 하여 《연주산》이라고 불리웠으며 고려중엽이후는 묘향산의 바위들이 류달리 희고 정갈하다는 의미에서 《태백산》으로도 불리웠다.

묘향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를 비로봉이라고 하는데 《비로》라는 말은 불교경전에서 쓰이는 《가장 높다》는 뜻으로서 조선에서 오랜 불교신앙의 중심지의 하나였던 묘향산의 력사와 련결되여있다고 볼수 있다.

묘향산의 문화유적들과 봉우리들, 바위들과 폭포들에는 고대국가의 건국전설, 반침략투쟁을 반영한 전설, 묘향산의 아름다운 자연풍치와 그것을 신비화한 전설, 종교와 관련된 전설 등 여러가지 내용을 담은 전설들이 깃들어있다.

인호대전설

어느해 5월 때아닌 눈비가 내려 상원암에 오르는 사람들이 앞을 분간할수 없어 폭포수가 떨어지는 높은 벼랑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망설이고있을 때 큰 호랑이가 내려와 길을 인도해주어 상원암이 있는 벼랑우로 오르게 되였다는 이야기이다.

인호대에는 이 이야기와는 좀 차이나는 다른 전설도 있다.

묘향산의 어떤 중이 룡연폭포우에 절을 세울만한 좋은 터가 하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절터를 정하려고 길을 떠났다. 역시 눈이 내려 길을 찾지 못하여 헤매이는데 큰 범이 나타나 길을 내면서 인도해주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룡연폭포우에 터를 정하고 상원암을 지을수 있었다고 한다.

구월산

조선의 황해남도 북서부지역에 위치하고있는 구월산은 조선의 명산으로 불리우는 명승의 하나이다.

구월산은 웅장한 벼랑들과 준수한 봉우리, 기묘한 바위들뿐아니라 아름다운 폭포와 담소들을 가진 수많은 계곡들로 이루어져있어 조선의 명산으로 손꼽히고있다.

구월산에는 또한 오랜 옛날부터 조선의 선조들이 생활하면서 남겨놓은 창조의 자취를 보여주는 수많은 력사유적들과 유물들이 있으며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금강산이나 묘향산에 비하여 많은 전설들이 깃들어있다.

이처럼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구월산은 현시대에 와서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이름있는 관광지로 더욱 훌륭히 꾸려졌다.

구월산의 지명유래

구월산이라는 이름은 옛날에 이 산을 궁홀산, 궐산 등으로 부르던데서 유래된것이다.

옛기록에는 궁홀산을 빨리 발음하면 궐산이 되고 천천히 발음하면 구월산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옛신화에 의하면 구월산을 먼 옛날에는 아사달산, 금미달산, 백악산으로도 불렀다고 한다.

아사란 아침, 첫, 처음이라는 조선사람들의 옛날말이며 달은 고장, 산을 의미하는 뜻인데 구월산에는 지금도 아사봉이라고 불리우는 봉우리가 있다.

금미달은 고미달이라는 말에서 유래한것으로서 이것은

곰골, 곰산을 천천히 발음한데서 나온 이름이다.

또한 백악산은 산꼭대기의 바위색이 희다는데서 유래된 이름이다.

패엽사의 유래

패엽사는 구월산4대절간의 하나로 이름이 높았다. 9세기초에 구엽대사라는 중이 세운것으로 전해지고있는 이 절은 당시에는 한산사라고 불렀는데 그후 구엽대사가 인디아에 가서 패엽(파초와 비슷한 나무잎)에 불경을 써가지고 온데로부터 패엽경이 있는 절간이라 하여 패엽사로 부르게 되였다고 한다.

달천온천의 유래

구월산 월명골아래 산기슭에는 달천이라고 부르는 온천이 있다.

먼 옛날 구월산밑에서 살던 달이라는 효녀가 어머니의 병치료에 쓸 약초를 캐려 산에 들어갔다가 구렝이에게 잡혀먹히게 된 다리부러진 종다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 그 종다리는 월명골아래에 있는 김이 물물 피여오르는 샘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다리가 씻은듯이 나아 날아가는것이였다. 그것을 본 달이는 너무도 신기하여 그 샘물을 떠가지고 와서 어머니에게 대접하였더니 어머니의 병이 완쾌되였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온천을 달이의 이름을 붙여 달천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무염봉전설

옛날 바다가까이에 있는 구월산마을에 왜구들이 자주 침입하였다. 마을사람들은 이때마다 마을을 지켜싸울 방책을 의논하군 하였는데 그들속에는 지혜가 많아서 꾀돌이라고 불리우는 소년도 있었다. 묘술을 궁리하던 꾀돌이는 봉우리의 나무가지들마다에 빈섬을 매여달아 로적더미가 많은것처럼 보이게 하자는 안을 제기하였다. 마을사람들은 그가 내놓은 안을 지지하여 모두가 떨쳐나 나무가지들에 빈섬을 매달아놓고서는 매일 봉에 올라 북을 치고 병쟁기소리를 요란히 울렸다.

왜구가 파견한 렴탐군놈이 와서 나무를 하는척 하는 꾀돌이에게 《얘, 저기 희끗희끗 보이는게 무어냐?》고 묻자 그는 《아니, 그것도 몰라요, 지금 구월산에는 우리 군사 수천명이 진을 치고있는데 저기 보이는 허연것들은 다 그들이 먹을 군량과 소금더미래요.》라고 대답하였다.

그의 말을 들은 렴탐군놈은 기겁하여 줄행랑을 놓았고 놈의 말을 듣고 왜구들도 더는 이 고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후부터 빈섬을 매달았던 봉우리를 소금이 없는데도 소금더미가 있는것처럼 보이게 가장하였다고 하여 무염봉 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칠보산

조선의 함경북도 동해안의 남부에 위치하고있는 칠보산은 동쪽으로 푸른 물결 설레이는 조선동해를 한품에 안고 북쪽의 어랑천, 남쪽의 화대천사이의 250여㎢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장엄하게 솟아있는 조선의 명산중의 하나이다.

18세기의 이름있는 려행가이며 시인이였던 박종은 칠보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찬미하여 맑고 꼭 알맞는 틀에서는 금강산을 일러야 하고 높고 기발한 점에서는 설악산을 들어야 하며 서리고 겹친 산세로는 묘향산을 손꼽아야 하지만 깊숙한 가운데 기이한 맛을 갖춘것으로는 칠보산이 으뜸이라고 노래하였다.

칠보산의 지명유래

칠보산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여러가지로 전해내려오고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산에 세상에서 귀중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일곱가지 보물이 묻혀있다고 하여 칠보산이라고 불렀다는것이다.

칠보산의 풍경은 산과 계곡, 바다에 따라 각이한 풍경을 이루고있어 그 특징에 따라 내칠보, 외칠보, 해칠보로 나눈다.

칠보산은 또한 계곡과 수림, 바다가 경치가 금강산과 같이 아름답다고 하여 함북금강으로도 불리워왔다.

최석금전설

칠보산의 적석암을 지나가자면 마치 배낭을 진 중이 앞에 서고 아이를 업은 녀인이 뒤를 따르며 그 뒤에 강아지 한마리가 헐레벌떡 쫓아가는것처럼 보이는 바위가 눈길을 끄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최석금바위라고 부른다. 최석금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먼 옛날에는 칠보산 앞바다가 기름진 들판이였고 그 가운데 풍요한 마을이 있었는데 린색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었다. 어느날 이 마을에 동냥을 온 중이 진종일 돌아다녀도 쌀 한줌 얻지 못하다가 어떤 집 후한 아낙네를 만나게 되여 한 바가지의 쌀을 얻게 되였다. 그리하여 중은 이 아낙네의 마음이 고마워서 그를 재앙에서 모면 시키기 위하여 데리고 마을을 떠나면서 부탁하기를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된다.》고 신신 당부하였다. 그들이 적석암우에까지 올랐을 때 뒤에서 뢰성벽력이 일어났다. 그 아낙네는 그만 얼김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금방까지 있던 마을과 들판은 금시에 바다로 변하였고 동시에 함께 가던 중과 아낙네 그리고 그뒤를 쫓아가던 강아지는 바위로 굳어져버렸다는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바위와 관련하여 최석금이라는 부자놈이 동냥온 중에게 종을 시켜서 외양간에 있는 말똥을 바가지에 담아주게 하였는데 그 부자집 며느리가 가만히 중에게 쌀을 주고 함께 가다가 우와 같은 일이 벌어져 바위로 굳어졌다는것이다.

2. 조선의 이름난 강들과 유래

압록강

압록강은 백두산천지에서 발원하여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조선에서 가장 긴 강이다. 예로부터 2천리장강으로 불리워온 압록강은 길이가 총 803㎞이다.

압록강은 오랜 옛날부터 조선민족의 력사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흐르고있다.

압록강은 용감하고 슬기로운 조선의 선조들이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는데서 큰 역할을 한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고있다. 지금도 압록강기슭에는 나라를 지켜싸운 조선의 선조들이 남긴 유적들과 성터들이 남아있다.

17세기 북방에서 침략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의 선조들이 적들을 모조리 격멸소탕하고 피묻은 칼을 강물에 씻었다는 만포의 세검정과 의주의 통군정을 비롯하여 많은 루정들과 의주의 고려장성, 피현의 백마산성, 창성의 금산성, 초산의 덕지성, 중강의 려연성 같은 산성들이 있다.

압록강류역일대는 조선의 산림자원의 보물고를 이루고있어 자연경치가 아름다울뿐아니라 귀중한 자원이 가득차있다. 압록강과 그 지류들에는 80여종의 물고기들이 있으며 풍부한 수력자원이 있다.

압록강류역일대에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신 많은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들이 있다.

압록강의 지명유래

압록강은 고구려시기에 아리나리라고 불리웠다.

여기서《아리》는 길다 또는 크다는 뜻이고 《나리》는 강 또는 나루라는 뜻이다. 그후 강이름을 한자로 옮기면서 압록강(鴨綠江)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물이 맑아서 오리머리와 같이 정갈하며 푸르게 보이는 강이라는 뜻이다.

고구려 건국설화에 청하라는 강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압록강의 다른 이름으로서 역시 푸른 강이란 뜻이다.

두만강

두만강은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조선동해로 흘러드는 조선에서 두번째로 긴 강이며 길이는 547.8㎞이다.

일제강점시기 두만강은 나라를 잃은 조선인민이 고향을 등지고 이역만리로 건너가던 눈물의 강이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높이 울리신 그때부터 두만강은 혁명선렬들의 피어린 투쟁의 자취가 어린 강으로 되였으며 오늘은 락원의 강으로 전변되였다.

두만강류역의 산림은 성숙림으로 된 산림이 94%를 차지한다.

두만강의 하류에는 물길변화와 퇴적작용에 의하여 생긴 수십개의 크고작은 섬들이 있고 강어구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여있다. 두만강에는 이 강에서만 고유하게 사는 두만강야레를 비롯하여 수십종의 랭수성물고기들과 강오름물고기들이 있다. 두만강과 그 지류들은 전력생산, 관개용수, 공업용수, 하천운수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리용된다.

두만강의 지명유래

두만강이라는 이름은 《즈믄》이란 말과 관련되여있다. 옛날말로 《즈믄》은 수자 천을 의미하였다. 즉 갈래가 천개나 되는 강이라고 하여 불리운 이름이다. 두만강은 길이 5㎞이상되는 지류만 하여도 약 300개나 되며 그보다 작은 지류들까지 합치면 천개나 된다.

즈믄을 한자로 옮기면서 두만(豆滿)이라고 하였다.

대동강

조선의 평안남도 대흥군 랑림산에서 시작하여 조선서해로 흘러드는 대동강은 수도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유서깊은 강이다.

대동강은 조선에서 다섯번째로 긴 강이며 길이는 450.3㎞이다. 대동강류역에는 많은 지하자원이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산림축적이 높은 지역으로서 주로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들이 많이 퍼져있다.

대동강에는 60종이상의 물고기들이 있으며 대동강물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공업용수, 농업용수, 류역안의 도시용수로 리용되고있다.

대동강기슭에는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인 만경대가 있으며 주체사상탑이 거연히 솟아있다.

주체49(1960)년 7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동무들과 함께 대동강가에서 아침해돋이를 바라보시며 《대동강의 해맞이》라는 시를 읊으시였다.

동트는 대동강 해가 솟는다
찬란한 해돋이는 우리의 마음
청춘도 희망도 노을로 되여
내 조국 강산에 빛발쳐가리

락원의 대동강 해발넘쳐라
불타는 해돋이는 우리의 정열
세월의 폭풍도 함께 헤치며
수령님 받드는 전위가 되자

오늘은 대동강 해돋이 맞고
래일은 공산주의 해맞이하자
혁명의 길 이어 세상 끝까지
주체의 노을을 펼쳐가리라

조선서해와 린접해있는 대동강어구에는 또한 주체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이며 조선인민의 만년대계의 귀중한 재부인 서해갑문이 있다.

대동강의 지명유래

옛날 조선의 조상들은 대동강을 패강, 패수, 혹은 왕성강이라고 불리왔다.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 예로부터 번성했던 력사의 오랜 도시 평양을 감돌아흐르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있다.

조선의 옛말로 수도를 패랄이라고 하였는데 패수, 패강은 패랄의 강 즉 수도의 강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패》

자는 평양의 옛이름인 바라나, 부루나의 《바라》,《부루》의 리두식표기이다. 왕성강이란 이름도 임금이 있는 성 즉 나라의 수도에 있는 강이란 뜻이다.

대동강으로 부르기 시작한것은 11세기경부터이다.

옛날 일부 사람들은 대동강(大同江)의 한자뜻을 보고 많은 강들이 하나로 합쳐 흐르는 강이라는 뜻으로 리해하기도 하였다.

옛지리책인 《동국여지승람》,《대동강수경》등에서 《많은 강들이 모여 흐르기때문에 대동강이라고 이름 지었다》라고 기록하여 놓은것은 바로 그러한 실례들이다.

그러나 대동강에서 《대동》이란 리두표기를 옛날 조선말로 따져보면 《한드루》라는 뜻이다.

여기서《한》은 《크다》는 뜻이고 《드루》라는 말은 《부루》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서 도시나 수도를 의미하며 또 넓은 벌을 가리켜 쓰던 말이다.

결국 대동강이란 이름도 오랜 력사를 가진 수도 평양의 강이란 뜻으로 리해하는것이 정확하다.

3. 조선의 옛8경들과 기타 명승들의 유래

조선의 옛8경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사는 커다란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지방의 유명한 산천경개와 문물, 풍속세태를 8경으로 집약화하여 부르며 널리 자랑하는 풍습이 있었다. 특히 조선에는 8경이 많았는데 이것은 옛날 조선사람들이 8이라는 수자를 길수(좋은 수자)로 여기던 관습과 관련되여있다.

조선사람들이 8을 좋은 수로 보던 관습은 매우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고조선의 단군이 나라를 세우고 재상을 8명을 두었던것과 고대 진국지역에서 나온 유물인 8수형청동방울(8개의 갈래로 된 방울)등은 그러한 사실을 립증하는 증거들이다. 조선의 금강산8선녀전설이 가장 유명했던것도 이러한 관습과 결부시켜 설명할수 있다.

조선의 옛8경가운데는 《평양8경》,《관동8경》,《관서8경》,《묘향산8경》과 같이 오늘까지 사람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것도 있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사라진것들도 많다.

옛문헌기록에 의하면 조선에는 지방마다 8경이 거의 다 있었는데 그 수는 무려 수십개에 달하였다.

지방별로 현재 문헌기록에 남아 전하는 8경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평안도지방

《평양8경》, 《관서8경》, 《묘향산8경》, 《의주8경》, 《강동8경》, 《삼등8경》

— 황해도지방

《해주8경》, 《풍천8경》

— 함경도지방

《회령8경》

— 강원도지방

《관동8경》, 《강릉8경》, 《삼척8경》, 《평해8경》

— 개성지방

《송도 전 8경》, 《송도 후 8경》

— 경기도지방

《한양8경》, 《남산8경》, 《금사8경》, 《통진8경》

— 충청도지방

《한산8경》, 《청안8경》, 《온양8경》, 《비인8경》

— 경상도지방

《문경8경》, 《위산8경》

조선8경

조선8경은 예로부터 전해오고있는 8개의 절경으로서 여기에는 백두산, 모란봉, 금강산, 묘향산, 부전고원, 지리산, 해운대, 불국사가 속한다.

여기서 해운대는 경상남도 부산시의 최남단에 있고 부전고원은 함경남도 부전군에 펼쳐져있고 지리산은 경상남도 함양군과 산청군의 경계에 높이 1 915m로 솟아있으며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토함산중턱에 있는 절을 말한다.

조선팔경가

조선8경이 유명해지기는 해방전에 작곡가 형석기가 지은 《조선팔경가》가 나온 이후부터라고 볼수 있다.

당시 조선의 량심적이며 애국적인 작곡가들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겨레에게 심어주기 위해 향토애가 짙은 작품들을 창작하군 하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조선팔경가》이다.

이 유명한 《조선팔경가》가 세상에 나오던 날 밤에 대한 작곡가 리면상의 회상담을 아래에 적는다.

… 일제의 가요탄압이 우심해지던 1935년경이라고 생각된다.

형석기가 《조선팔경가》의 초고를 써가지고 와서 나에게 방조를 요구하였다.

우리는 그 시기 매우 가깝게 지냈는데 서로 작품을 창작하면 의견을 받아 고치군 하였다.

형석기가 온것이 이른 저녁이였는데 선률을 더듬어보니 신통치 않았다.

우리는 마주앉아 밤이 깊도록 이런 상을 잡아볼가, 저런 상을 잡아볼가 하면서 여러 곡을 써보았지만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인내성을 발휘하며 고심하던끝에 드디여 운치있는 선률을 뽑아내였다. 이렇게 조국의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을 노래한 《조선팔경가》는 완성되였지만 그날밤 난처한 일이 생겼다.

그날이 바로 어머니의 제사날이였는데 형석기와 마주앉아 창작에 여념이 없다보니 제사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있었던것이다.

밤이 깊었을 때 안해가 부엌에서 식반을 차려가지고 올라왔다.

안해는 우리가 곡을 다듬기에 골몰하는것을 보고 조심히 상을 놓은 후 부엌으로 내려갔다. 노래를 완성하고보니 상결에 한되들이 술병까지 놓여있었다. 나는 온밤 창작하느라고 수고하였는데 친구와 함께 마시라는 주안상인게다하고 형석기와 마주앉았다. 우리는 노래를 완성한 김에 술이 아니라 기쁨을 마시는 기분이였다.

비록 동료의 작품이지만 내 작품을 완성한것 못지 않게 기뻤던것이다. 그런데 빈병을 내놓았을 때 안해가 다시 올라오더니 《제사를 지내긴 지냈소?》라고 나에게 조용히 묻는것이였다.

《뭐 제사?!》

나는 그제서야 그날이 어머니의 제사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그걸 왜 인제야 말하우?》

《어제 아침에 말했는데 그사이 잊어먹었어요?》

《그런걸 난… 이걸 어쩐다?》

《상우에다 밥을 한그릇만 놓은걸 보면 몰라요? 손님이 오셨는데 그럴 녀자가 어디 있어요?》…

안해가 난처해하자 형석기는 너무도 미안하여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여보, 우리는 오늘밤 명곡을 뽑아냈소! 그야말로 조선의 명곡이요! 어머님이 이걸 아신다면 대단히 기뻐하실거요!》

《그렇다면 기뻐하구말구요!》

안해도 이렇게 기분전환을 해주자 나는 상우에 《조선팔경가》의 악보를 놓고 《어머님, 기뻐해주십시오. 오늘밤 우리는 명곡을 창작했습니다.》라고 하면서 형석기와 함께 절을 하였다.

그때부터 아득한 세월이 흘렀지만 나에게는 지금도 형석기의 《조선팔경가》를 완성하던 그날밤의 일이 잊혀지지 않는다…

조선8승

조선8승은 조선에서 조선8경 다음가는 8개의 절승으로서 여기에는 경성, 몽금포, 한려수도, 부안의 변산반도, 부여, 가야산의 해인사계곡, 속리산, 한나산이 속한다.

여기서 경성은 함경북도 경성군의 소재지인데 울창한 숲으로 뒤덮인 련봉들과 기암들, 언제나 쉬임없이 흘러내리는 내가의 맑은 물, 폭포와 푸른 담소, 곳곳에서 솟아나는 온천수로 하여 풍치좋은 명승지를 이루며 바다가도 해식해안으로서 경치좋은 명승지이다.

몽금포는 황해남도 룡연군의 바다가에 있는 명승지인데 몽금포란 이름은 황금무지우에서 꿈을 꾸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였다.

몽금포는 예로부터 흰 모래불, 붉은 해당화, 푸른 소나무들이 하나로 어울린 해안경치, 저녁의 바다경치, 바다가의 기암절벽 등이 아름다와 대표적인 명승지의 하나로 알려졌다.

한려수도는 경상남도 통영군의 한산도와 전라남도 려수시사이에 있는 물길로서 크고작은 많은 섬들과 반도와 만들의 경치,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서늘한 기후와 아열대사철푸른넓은잎나무들이 자라는 주변지역들의 경치, 임진조국전쟁(1592—1598)시기 왜적을 쳐물리친 싸움터들이 있는것으로 하여 널리 알려졌다.

부안의 변산반도는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반도로서 명소들과 바다가모래불, 바다가벼랑 등이 조화되여 예로부터 《호남금강》으로 불리워왔다.

부여는 충청남도 서남부에 위치한 백제의 옛도읍으로서

부소산, 락화암, 고란사 등 명승고적이 많아 이름이 알려져있다.

가야산의 해인사계곡은 경상남도 합천군의 가야산기슭에 있는 해인사로 들어가는 계곡으로서 경치좋고 산세가 깊은 명승지이다.

관동8경

관동8경은 관동지방 즉 오늘의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8개의 명승지로서 령동8경이라고도 한다. 예로부터 통천의 총석정, 고성의 삼일포, 간성의 청간정, 강릉의 경포대, 삼척의 죽서루, 양양의 락산사, 울진의 망양정, 평해의 월송정을 관동8경으로 꼽았다.

관동8경의 자연경치를 크게 바다가경치, 호수경치, 강변경치, 산경치로 갈라볼수 있지만 모두다 자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여 절경을 이루고있다.

관서8경

관서8경은 관서지방 즉 오늘의 평양시, 평안남도, 평안북도, 자강도에 있는 8개의 명승지들을 말한다. 이 명승지들은 각기 자기의 특색을 가지고있으나 대체로 큰 강들이 굽이쳐흐르는 강기슭벼랑의 아름다운 경치를 대표하였다.

일제의 조선강점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침략자들의 야만적인 폭격으로 관서8경의 옛건물들이 파괴되고 명승지들이 손상을 입었으나 전후 복구정리되여 근로자들의 훌륭한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통곡하고 돌아선 시인

관서8경의 첫 순서로 꼽히우는 평양의 련광정기둥에는 고려시기의 이름난 시인인 김황원이 부벽루에 올라 대동강의 아름다운 경치를 시에 담아 노래부르려다가 그 경치가 하도 아름다워 글귀를 미처 고르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시 두 구절이 붙어있다.

이 시는 원래 부벽루에 붙어있던것인데 지금은 관서8경으로 유명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련광정에 옮겨져 붙어있다.

김황원이 서경(오늘의 평양) 류수를 지낼 때 있은 일이다. 어느날 부벽루에 오른 그는 눈앞에 펼쳐진 대동강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절경에 단번에 매혹되였다.

순간 그의 머리속에서는 시상이 꿈틀거렸다.

시를 잘 지어 후에 《해동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은 그가 이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어찌 참을수 있었겠는가.

그는 들보에 주런히 걸려있는 고금의 시들을 읽어보았다.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것이 없었다.

하여 김황원은 따라온 관속들에게 시를 적은 현판들을 모두 내리워 불태우라고 명령하였다.

그런 다음 자기가 대동강에 대한 최상의 걸작을 지어 여기에 붙이리라 결심하였다.

드디여 두루말이 종이를 펴놓고 붓을 꼬나든 김황원은 단숨에 써내려갔다.

장성일면 용용수
대야동두 점점산
(긴 성 한면에는 강물이 늠실늠실
큰 들판 동쪽에는 산들이 우뚝우뚝)

거침없이 써내려가던 시인의 붓대가 여기서 뚝 멈춰섰다.

어깨성을 쌓고 김황원의 시를 내려다보던 관속들도 의아하여 서로 눈길을 마주쳤지만 시인은 그냥 붓방아만 찧을뿐 더 써내려가지 못하였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 어느덧 해는 서산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으나 김황원은 계속 이미 써놓은 시구절을 중념불 외우듯 반복하여 외우며 끙끙거리기만 하였다.

아무리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면서 모지름을 썼으나 다음 시구가 끝내 떠오르지 않아 그는 붓대를 집어던지고말았다.

《아, 이 아름다운 절승을 노래하기엔 내 재능이 정녕 모자라누나!》

김황원은 너무도 안타깝고 분하여 사나이의 거쉰 목소리로 통곡하였다.

평양8경

평양8경에는 평양의 유명한 자연경치와 함께 평양사람들이 지니고있던 미풍량속과 다정다감한 정서가 잘 반영되여있다.

평양8경에는 을밀대의 봄풍경, 부벽루에서의 달맞이, 영명사의 중찾기, 보통문에서 손님바래기, 거문나루의 배띄우기, 련당의 비소리, 룡산의 푸른 정기, 마탄의 봄물결이 속한다.

여기서 을밀대의 봄풍경은 봄날에 모란봉의 을밀대에서 보는 주위의 아름다운 경치이며 부벽루에서의 달맞이는 모란봉의 부벽루에서 바라보는 둥근 보름달의 이채로운 감흥을 의미하는것이다.

영명사의 중찾기는 모란봉기슭의 청류벽우에 있던 절의 중을 찾아가는 길이 경치가 아름다워 흥취를 돋군다는것인데 영명사는 조국해방전쟁(1950—1953)시기 미제의 폭격에 의하여 불타없어졌다.

보통문에서의 손님바래기는 옛날 평양성의 서북쪽방향으로 통하는 관문인 보통문에서 손님을 바래는 풍경으로서 손님을 멀리까지 나가 바래워주는 조선인민의 미풍량속을 보여준다.

거문나루의 배띄우기는 대동강과 순화강, 보통강의 합수목인 남호기슭에 배를 띄워타고 노를 저으며 배전에 부딪치는 물소리와 푸른 하늘가에 날아예는 갈매기의 자유로운 모습을 부감하는 흥취이며 련당의 비소리는 옛날 련광정앞에 있던 련못에서 비가 내릴 때 련잎에 떨어지는 비소리가 마치도 원앙곡을 타는 비파소리 같다고 하여 그 소리

가 구성지다는 뜻에서 나온것이다.

룡산의 푸른 정기는 대성산의 경치를 이르는것으로서 사철 푸른 소나무가 온 산을 덮고있어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변함없이 푸르게만 보이는 이곳 풍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철 푸른 소나무숲과 함께 철따라 이채를 띠는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여 이곳의 조화로운 자연풍경은 더욱 더 아름답다.

마탄의 봄물결은 대동강의 여울인 마탄에서 이른 봄 눈석이물이 넘쳐나 소용돌이치는 풍경으로서 마탄이라는 말은 외적의 말주검이 흘러내려가다가 쌓여서 《말여울》을 이루었다는 뜻에서 나온것이다.

회령8경

회령8경은 19세기말에 편찬된 《속관북지》에 기록되여 전하여지는데 여기에는 회령천의 수양버들, 운두성의 늦단풍, 두만강의 고기잡이등불, 벽평의 구성진 노래소리, 동쪽루대에서의 달맞이, 성 서쪽의 푸른 안개, 봉의산의 보슬비, 오산의 설경이 속한다. 여기서 운두성은 회령시 성동리에 있는 운두봉의 옛성을 말한다. 그리고 벽평은 회령시 벽성리와 덕흥리에 있는 벽성천하류지역의 평야를 말하며 오산은 회령시에 있는 오산덕을 말한다.

옛책들에는 또 다른 《회령8경》에 대한 자료가 전해지고있는데 여기에는 오산의 저녁노을, 운두성의 석양풍경, 활터의 꾀꼬리소리, 안개낀 강가에서의 고기구경, 흥성이는 두 나라의 변강시장, 이삭패는 전야, 달밤의 빨래터정경, 해질녘 물긷기가 속한다. 여기에는 당시 회령지방인민

들의 근면하고 아름다운 세태풍속이 짙게 반영되여있다.

묘향산8경

묘향산8경은 조선의 명산 묘향산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8가지 경치를 꼽은것인데 여기에는 심진정에서의 손님마중과 배웅, 불영대에서의 달구경, 인호대에서의 폭포구경, 금강못에서의 물고기구경, 탐밀봉의 짙은 록음, 설령대의 구름돌이 또는 백운대의 단풍구경, 단군대의 저녁노을, 봉두타에서의 만폭구경이 속한다.

금강산 8대미

조선의 명산인 동시에 세계적인 명산으로 조선인민들과 세상사람들의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금강산에서 조선사람들은 8대미를 선정하여 널리 자랑하고있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우선 산악미와 떨어져 말할수 없다.

금강산에는 1만 2천봉우리를 거느리고 거연히 솟은 비로봉을 비롯하여 1 500m가 넘는 봉우리만 하여도 10여개, 1 000m이상되는 봉우리는 100여개로서 그야말로 천봉산악을 이루고있다.

집선봉, 일출봉과 월출봉, 채하봉과 초대봉 등 금강산의 봉우리들은 그 끝이 뾰족하여 창끝과 칼끝, 송곳이나 초대, 붓끝을 세운듯 기세차게 보이는가 하면 차일봉과 백마봉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웅장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을 준다.

《신선》, 《선녀》들이 잠시 놀러 내려왔다가 금강산의 절승경개에 현혹되여 하늘로 돌아가는것을 잊고 돌로

굳어졌다는 천녀봉 등 금강산의 기묘한 산악미는 볼수록 장쾌하다.

금강산에는 우수한 조각가, 건축가들도 무색케 할 《조각품》들이 이르는곳마다에 펼쳐져있어 사람들의 발걸음을 잡는다.

삼선암과 귀면암을 비롯하여 《다보탑》과 《수미탑》, 칠층암 등 자연돌탑과 어린이가 심산속에서 밤에도 초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모양의 동자바위, 귀여운 애기를 업고있는 녀인모습의 사랑바위, 의좋은 부부처럼 나란히 서있는 부부바위, 스승과 제자가 말을 주고받는 모양의 문답석 등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의 높은 《조각술》에 경탄을 금할수 없게 한다.

계곡미로 하여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더욱 이채를 띤다.

금강산의 계곡미를 대표하는 만폭동골안과 비로봉에 잇달린 깊고 긴 구성동계곡은 울창한 수림과 기암괴석이 어울린가운데 아름다운 경치가 주마등처럼 변화무쌍하게 펼쳐져 보기드문 계곡미를 나타내고있다.

그런가하면 수류화개동계곡에서는 맑은 물이 바위우를 조용히 흐르고 여름에는 온갖 꽃이 만발하고 새들의 지저귐소리로 하여 동화세계를 방불케 한다.

금강산의 경치는 높은곳에 올라 내려다보거나 건너다보는 전망미로 하여 더욱 황홀하다.

안심대와 천선대에서 바라보는 만물상의 아름다움, 비룡대와 구룡대에서 바라보는 상팔담의 아름다움, 은선대와 불정대에서 금강산의 가장 큰 폭포인 십이폭포를 바라보는 그 아름다움은 천하절경을 이룬다.

내금강과 외금강, 해금강을 다같이 부감할수 있는 비로봉과 중앙련봉에서의 전망은 숭엄하고 장쾌한 느낌을 준다.

하늘과 바다, 구름과 섬들이 온통 붉게 물들여지며 커다란 불덩어리가 이글이글 타듯이 해가 서서히 솟아오르는 해돋이구경도 금강산8대미의 하나이다.

불정대와 비로봉, 해만물상과 총석정에서의 해돋이구경이 장쾌하고 숭엄한데 비해 외금강의 대자봉, 수정봉에서의 해돋이구경은 절경의 극치를 이룬다.

탐승을 마치고 몸을 잠그면 피곤이 순간에 다 풀리는 금강산온천, 그리고 한번 마시면 불로장생한다는 백운대밀의 금강약수를 비롯한 삼록수, 금사정, 몽천 등 많은 약수들, 여러곳에서 솟아나는 정가로운 샘물들은 금강산의 자랑들중의 하나이다.

호수와 담소의 아름다움 역시 금강산의 절경을 한껏 돋구어준다.

삼일포와 영랑호, 시중호 등 맑고 잔잔한 호수들과 구룡연, 봉황담, 련주담, 상팔담, 옥류담을 비롯한 수많은 아름다운 소들은 금강산8대미의 하나이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폭포미로 하여 더욱 장관을 이룬다.

금강산4대명폭들인 구룡폭포, 비봉폭포, 옥영폭포, 십이폭포를 비롯한 수십개의 크고작은 폭포들이 옥같이 맑은 흰 비단필을 걸어놓은듯 한 광경을 펼쳐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한껏 돋구어준다.

이처럼 산악미, 조각미, 계곡미, 전망미, 해돋이구경, 온천과 약수 그리고 샘, 호수와 담소, 폭포미는 천하절승 금강산을 자랑하는 8대미이다.

기타 명승들의 유래

옛문헌들에는 8경과 함께 평양의 화촌(만경대)10경, 함경도의 백두3경, 강계의 석주16경, 황해도의 봉산12경, 경기도의 한양10경, 경상도의 려주12경, 녕해12경, 대구10경, 밀양10경, 거제10경 등과 같이 3경, 10경, 12경, 16경과 관련한 자료들도 전해지고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지난날 조선인민들이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의 아름다운 경치와 풍경에 대한 깊은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대를 이어가면서 널리 자랑하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만경대의 지명유래와 화촌10경

만경대라는 지명은 원래 만경봉을 가리켜 부르던 이름이다.

18세기에 편찬된 《화은집》이라는 책에 의하면 만경봉이 대동강과 순화강, 보통강의 합수목인 남호기슭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만경봉을 포함한 이 일대를 남호라고 하였고 만경봉은 남산으로 불렀다.

그러던것이 봉우리자체의 형세가 높은 벼랑으로 이루어진데다가 그 정수리가 밀어낸듯 평퍼짐한것이 마치 하나의 정교한 루대를 방불케 하고 또 봉우리우에 올라서면 사방 100리안팎의 일만가지 경치를 환히 바라볼수 있다는 의미에서 만경대로 고쳐불렀다고 한다.

만경대라는 이름은 그후 만경봉뿐아니라 그 주변지역까

지 포괄하는 지명으로 굳어지게 되였다.

조선인민은 오래전부터 만경대가 솟아있는 남호일대의 뛰여난 풍경을 평양8경의 하나(거문나루에 배띄우기)로 꼽았으며 특히는 만경대에서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10가지로 함축하여 《화촌10경》으로 명명하고 널리 자랑하여왔다.

화촌10경에는 만경대의 봄경치, 세 섬의 달밤정경, 봉포에서의 고기잡이, 우산에서의 소방목, 광촌마을의 밥짓는 연기, 석호의 돛배, 양산의 푸르른 기상, 원암의 붉은 절벽, 추교의 씨붙임광경, 동림나루터에서의 손님배웅이 속한다.

여기서 세 섬은 만경봉앞의 두루, 두단, 문발섬이며 봉포는 만경봉 좌측 봉황대앞에 있던 옛 나루터의 이름이다. 그리고 우산은 지금의 만경대구역 원로리 차가골로 추정되는데 지난날 이곳에서 짐승을 많이 길렀기때문에 일명 짐승골이라고도 불렀다.

또한 광촌은 순화강 서쪽의 현재 만경대구역 대평동에 있던 광탄동이며 석호는 보통강과 대동강이 합수되는 지점에 있던 나루터로서 옛날 이곳에 석호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다.

양산은 오늘의 만경대구역 룡봉리의 양산이며 원암은 만경봉에서 곧추 바라보이는 락랑구역 원암산기슭의 절벽이다.

이밖에 추교와 동림은 각각 만경대구역 금천동의 추자벌과 만경봉기슭의 동림선창을 의미한다.

화촌10경의 매 대상은 각기 자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만경대를 둘러싼 일만경치를 함축하고 이 산세수려한 곳에서 사는 조선인민의 다정다감한 인정세계와 고상한 생활지향을 풍만하게 반영하고 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옛문헌들에서는 화촌10경을 소개하면서 《평양일대의 산수치고 아름답지 않은곳이 없으나 화촌일대야말로 그 경치에서 최고》이며 특히 만경대와 같은 절경을 두고 《나라안에 이만한곳은 다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경대는 산천경개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널리 이름이 알려졌다. 이 절경의 고장에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1(1912)년 4월 15일에 탄생하시였다.

오늘 만경대는 조선인민의 마음의 고향으로 되고있으며 조선혁명의 성지로 빛나고있다.

백두3경

백두3경은 지난 시기 백두산일대의 독특한 자연풍경을 대표하는것으로 일러오던 세가지 경치를 말한다.

주체20(1931)년에 안재홍이라는 사람이 쓴 《백두산등보기》에 의하면 백두3경에는 백두련봉과 천지의 장엄한 광경, 무두봉우에서의 대전망, 정결하고 어여쁜 삼지연의 미가 속하였다고 한다. 이 세 경치에 대해서는 18세기에 편찬된 박종의 《백두산기행》, 서명응의 《백두산유람기》, 홍량호의 《백두산고》, 성해응의 《동국명산기》등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있다.

백두련봉과 천지의 장엄한 광경은 만리창공을 치뚫으며 높이 솟은 백두련봉의 웅자와 우주를 품에 안은듯 한 천지의 호탕한 경개가 서로 어울린 숭엄하고도 신묘한 풍경이다.

그리고 무두봉우에서의 대전망은 무두봉마루에서 한눈에 아득히 바라보이는 천고의 대밀림과 그를 에워싼 크고 작은 산발들의 웅건한 전경이며 정결하고 어여쁜 삼지연의 미는 백두산악을 배경으로 펼쳐진 삼지연의 섬세하면서도 아기자기한 경치를 의미한다.

옛문헌들에서는 백두3경을 가리켜 호방하고 위용있는 남성적인 풍격과 깨끗하고 우아한 녀성적인 미가 겸비된 명승중의 명승이라고 하면서 이를 《하늘의 기이한 창조물》, 《속세간에 둘도 보기 어려운 조화의 신비한 기교》로 찬양하였다.

회령의 지명유래와 회령3미

회령이란 지명은 이곳에 있는 산봉우리인 오산과 관련되여있는데 고려시기부터 이 지역이 오산, 회산 등으로 불리우다가 15세기초에 회령으로 고쳤다.

회령은 본래의 고장이름인 회산에서 《회》자를 따고 이곳에 있던 진의 이름인 녕북진의 첫 글자《녕》(령으로 발음)을 따서 지은 이름이다.

녕북진은 당시 부령(부녕)의 북쪽에 있는 곳이란 뜻이다. 결국 회령은 회산과 녕북진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회령일대는 예로부터 백살구와 오지가 유명하고 산천이 수려할뿐아니라 녀인들의 미모가 뛰여나 이름이 나있었다.

회령3미는 회령일대의 3가지 자랑인 행미, 토미, 녀미를 가리키는 말이다. 즉 백살구, 회령오지, 아름다운 녀인이 바로 그것이다.

회령지방의 명산물로 알려진 백살구는 물과 단맛이 많고 신맛이 적으며 향기가 있다.

그리고 회령오지는 그 질이 좋고 색갈이 고와 오래전부터 이웃나라에 수출되였다.

회령지방은 또한 녀인들의 미모가 뛰여나 널리 알져져 있었다.

회령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 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곳이다.

4. 선군시대에 새로 태여난 절경들

조선의 선군시대는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민족의 운명과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사항전의 시대인 동시에 사람과 사회와 자연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변혁하기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시대이다.

영웅적투쟁과 거창한 변혁으로 약동하는 이 위대한 시대에 조선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선경들이 가는곳마다에서 펼쳐지고있다.

선군8경

자기 조국, 자기 고장의 아름다운 경치와 세태를 8가지로 꼽으며 널리 자랑하여오던 조선인민은 민족의 전통적인 풍습을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선군조선의 새로운 절경들을 선군8경으로 명명하였다.

선군8경에는 백두산의 해돋이, 다박솔초소의 설경, 철령의 철쭉, 장자강의 불야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평선,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범안리의 선경이 속한다.

선군8경은 시대의 새로운 자연풍치를 대표하는것만큼 자연미 그 자체로서도 희한한 절경을 이루고있으며 이와 함께 조선의 위대한 시대정신을 반영하고있다.

백두산의 해돋이

선군8경의 첫번째 순서로 꼽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백두산의 일만경치가운데서도 제일 아름다운 경관이다.

조선에서 제일 높은 산이며 조선인민이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으로 우러르는 백두산은 일찌기 조선8경의 첫 손가락에 꼽혀왔지만 장엄하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해돋이 장관으로 하여 더욱 신비롭고 숭엄하게 안겨온다.

이른 새벽의 어두운 구름속에서 한점의 가는 빛이 솟구쳐올라 점차 굵게 퍼져오르면서 잠간사이에 구름떼를 뒤번져놓는다.

하늘이 어디고 땅이 어디냐싶게 소소리높은 기이한 절벽들과 천지의 푸른 수면을 온통 하나의 진홍빛으로 물들여놓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장쾌함과 신비함의 절정을 이룬다.

백두산의 해돋이는 계절과 날씨에 따라 그 멋이 서로 다르며 보는 장소와 사상감정에 따라 그 느낌이 다채롭고 변화무쌍한 장관이다.

조선에서 고난의 행군시기이던 어느해 10월 량강도를 현지지도하시던 길에 몸소 새벽어둠을 헤치시며 백두산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백두산의 해돋이를 바라보시면서 백두산의 해돋이를 볼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기어이 완성해야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더 굳게 가지게 된다고 하시며 그래서 자신께서는 언제나 백두산의 해돋이를 사랑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수백만년전 열세번의 거대한 용암분출로 백두산이 형성된이래 해돋이는 백두산의 나이만큼 불타올랐을것이지만

그 진정한 아름다움은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그때부터 더욱 누리에 빛을 뿌리게 되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고 미래에 대한 락관으로 투지와 용맹을 백배해주는 백두산의 해돋이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모습과 기상이 그대로 어려있는 선군조선의 해돋이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백두산해돋이를 선군시대의 절경으로 내세우고 끝없이 사랑하는것이다.

다박솔초소의 설경

선군8경에 속하는 다박솔초소의 설경은 류다르게 이채를 띠는 풍경이다.

다보록하게 가지가 퍼진 잔솔잎우에 얹힌 하얀 눈송이들이 해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는 황홀경은 한낮에 보아도 좋고 노을빛이 어리는 저녁에 보아도 좋다. 하지만 다박솔초소의 설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 언덕에 오르시였던 주체84(1995)년 1월 1일의 이른 아침처럼 해가 솟아오를 때 자기의 아름다움을 한껏 펼친다.

아침노을이 피여나는 하늘가에 불덩어리같은 태양이 솟아오르면 다박솔우에 쌓인 하얀 눈이 금시 연분홍빛을 띠다가 다시 서서히 붉어지면서 온 다박솔언덕을 황홀하게 물들이는 모습은 그대로 한폭의 그림을 련상케 한다.

키낮은 다박솔이 땅이 보이지 않게 꽉 들어찬 다박솔언덕은 사계절 푸르싱싱함을 자랑하는 절경이지만 조선인민은 누구나 다박솔초소의 설경을 더더욱 사랑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초소를 찾으셨던 그날의 설경은 참

으로 장관이였다.

촘촘히 늘어선 다박솔에 밤새 내려앉은 서리꽃들이 아침해살을 받아 눈부신 빛을 뿌리고있어 희한한 설경을 이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초소의 설경을 한동안 바라보시다가 이런 곳을 다박솔중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시였다.

바로 그때부터 조선인민의 마음속에는 다박솔이라는 유정한 이름이 간직되고 다박솔초소의 설경은 선군조선의 절경으로 더더욱 빛나게 된것이다.

철령의 철쭉

선군8경의 하나로 꼽는 철령의 철쭉도 선군혁명추억과 더불어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사연깊은 꽃이다.

해발 677m의 철령은 오르면서 40리, 내리면서 40리로서 그 굽이가 아흔아홉이나 되는 험한 령이다.

안개도 쉬여오른다는 이 굽이 많고 가파로운 험한 령에도 해마다 4월말과 5월에는 아름다운 철쭉꽃바다가 펼쳐져 온 산을 붉게 물들인다.

령길이며 멀고 가까운 산릉선과 계곡마다에 피여나는 철령의 철쭉은 연분홍빛갈과 아름답고 청신한 모습으로도 황홀하지만 철령이라는 그 이름과 더불어 더욱더 정깊고 숭엄하게 안겨온다.

조선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1990년대 후반기의 준엄한 나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최전연초소들을 찾아 비가 오고 눈이 와도, 낮이건 밤이건 마다하지 않으시

고 10여차례 철령을 넘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해 4월 아름다운 철쭉꽃풍경앞에서 바쁘신 걸음을 멈추시고 철쭉꽃은 원래 진달래꽃이 피였다가 질 때가 되여야 피는 꽃인데 이렇게 때이르게 피여났다고 하시며 만시름 잊으신듯 철쭉꽃 만발한 철령을 굽어보시였다. 철령의 철쭉은 선군의 길을 억세게 걸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말없이 크나큰 고무와 힘을 안겨드리였다.

인적드문 험한 령길에 소문없이 피고지던 철쭉이 오늘은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조국과 인민에 대한 끝없는 헌신의 상징으로 높이 솟아 빛나는 철령과 함께 조선의 천만군민이 사랑하는 꽃으로 력사에 길이 전해지고있다.

장자강의 불야경

선군8경에 속하는 장자강의 불야경은 신비로운 자연이 펼친 장관도 아니고 세월의 흐름이 만들어낸 절경도 아니다.

장자강은 그 길이가 230여㎞로서 조선의 자강도에서 제일 큰 강이다.

밤에 자강도의 소재지 강계시 류동뒤산에서 바라보느라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넓은 광장의 환한 불빛이며 강변에 즐비하게 늘어선 아빠트들의 창가마다에서 쏟아져나오는 밝은 불빛들, 거리와 유보도마다에 유정하게 흐르는 가로등불빛들과 물우에 두둥실 뜬 유람선같은 수많은 봉사망들과 건물들의 눈부신 불빛들, 밤하늘의 별무리가 내려앉은듯 온 강계시가 불빛으로 차넘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87(1998)년 1월 북방의 사나운 대소한추위를 무릅쓰시고 자강땅을 찾으시여 6천여리의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강계정신의 불길을 지펴주시였다.

그날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자강땅을 다녀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는 이곳 인민들이 신념과 투쟁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는 불씨로 되였으며 오늘은 장자강의 불야경을 장쾌하게 펼쳐놓았다.

이 사연깊은 불야경과 더불어 자강도는 위대한 장군님께 있어서 더없이 정든 고장으로 되였으며 선군조선의 새 절경을 꽃피운 력사의 땅으로 자랑떨치게 되였다.

울림폭포의 메아리

선군8경의 하나인 울림폭포의 메아리는 높은 산중턱에서 쏟아져내리는 폭포의 모습과 10리밖에서도 들리는 메아리로 하여 절승경개로 꼽힌다.

울림폭포는 강원도 문천시, 천내군 동흥리, 법동군 룡포리가 접하고있는 마식령산줄기의 울림령에 위치하고있다.

울림폭포는 폭포소리가 법동, 문천, 천내지방을 뒤흔든다고 하여 붙인 이름이다.

울림폭포의 신비함은 그 이름처럼 신기한 메아리에 있다. 세면이 아아한 절벽으로 둘러막힌 기묘한 골짜기에서 울리는 폭포의 메아리는 10리밖에서도 들린다. 특히 륙담령마루의 번개정각에서 들으면 5리나 떨어진 곳이지만 폭포밑에서보다 그 울림이 더 크고 더 뚜렷하게 들려온다.

인적없는 태고의 밀림과 첩첩준령에 가로막혀 수수천년

그 울림소리조차 외롭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울림폭포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의 뜻을 높이 받든 인민군군인들에 의하여 발굴정리되였다.

울림령을 개발하고 새로 길을 낼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을 받은 인민군군인들은 험준한 천연요새를 개척하던중 울림폭포를 발견하게 되였던것이다.

새로 찾아낸 울림폭포골의 아름다운 자연경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 명승지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인민군대가 인민을 위하여 또 한가지 공적을 세웠다고 높이 치하해주시면서 울림령에서 새로 찾아낸 명소들을 원상그대로 보존하면서 인민들의 문화휴식장소로 잘 꾸리도록 하시였다. 그리고 주체90(2001)년 8월 26일에는 몸소 울림령지구를 찾으시고 울림폭포골 자연경치가 참으로 아름답다고, 참관도로를 닦아놓으니 인민들이 이곳에 찾아와 즐겁게 휴식의 한때를 보내면서 이 일대의 경치를 마음껏 구경하게 되였다고, 인민들이 천하절경을 이룬 울림폭포골을 보게 된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만족을 금치 못하시였다.

한드레벌의 지평선

선군8경에는 평안북도 태천군의 남부 대령강과 그 지류 천방강연안에 새롭게 펼쳐진 일망무제한 한드레벌의 지평선도 있다.

조선에서 선군시대에 사회주의땅답게 천지개벽된 무수한 벌들가운데서 한드레벌의 풍경은 단연 첫자리에 꼽을수 있는 절경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 89(2000)년 1월 24일 눈보라속에 한드레벌을 찾으시여 아득한 지평선을 바라보시며 정말 멋있다고, 천지개벽이 되였다고 만족해하시였다.

날이 갈수록 흥해만간다고 그 이름도 정답게 불리우는 은흥리의 방울산에 올라 무성한 복숭아나무와 활짝 핀 목화꽃속에 묻히여 한드레벌의 지평선을 부감하는 멋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10리나 되는 직선포전도로를 중심으로 바둑판처럼 규모있게 째인 한드레벌은 토지정리하기 전에 비하여 60여정보나 더 늘어났다.

벼바다 설레이는 청신한 가을날 아침 6시 30분경이면 두모산에 떠오르는 아침해살이 안개속에 잠긴 벌판으로 퍼져나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 맞붙은것과 같은 황홀함의 절정을 이룬다.

신비하게도 저녁 6시 30분경이면 무연한 벌판을 붉게 물들이는 저녁노을로 하여 한드레벌의 지평선은 더 한껏 아름다와보인다.

한드레벌은 그 이름에도 많은 사연을 담고있다.

옛날에는 군데군데 물웅뎅이를 파놓고 용드레질로 올망졸망한 뙈기논들에 물을 한드레씩 퍼서 고달프게 농사를 짓던 곳이여서 한드레벌이라는 눈물겨운 이름으로 불리웠다. 지난날의 가난과 락후의 흔적이 영영 사라졌지만 벌의 이름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어 전변의 력사를 후대들에게 전해주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뜻에 따라 한드레벌은 오늘도 옛이름 그대로 불리우며 조선의 대

지의 어제와 오늘의 하늘땅같은 차이를 가슴후련하게 펼쳐 보이고있다.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선군8경의 하나인 대홍단의 감자꽃바다는 조선에서 7월 말경에 보게 되는 대홍단벌의 절경이다.

감자꽃은 어디에서나 볼수 있지만 대홍단벌에 피여난 감자꽃바다는 조선의 북방에 펼쳐진 장관중의 장관이다.

원래 감자꽃은 흰색과 연보라색을 띠게 되는데 대홍단의 감자꽃은 거의 흰색을 띠는것이 특징이다.

6월말부터 피기 시작한 감자꽃은 7월중순과 말경에 이르면 온 대홍단벌을 하얗게 뒤덮는다.

일망무제한 그 감자꽃바다속에 서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하얀 감자꽃들이 설레이는 그 장관에서 흰 파도 넘실거리는 바다의 장쾌함을 느끼게 되며 감자꽃바다의 황홀함을 가슴에 안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서해곡창인 열두삼천리벌에 비기시여 그 이름 지어주신 백두삼천리벌의 대홍단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장정의 길에서 불멸의 자욱을 새기신 주체87(1998)년 10월 1일은 대홍단벌에 아름다운 절경을 안아온 력사의 날이였다.

그날이 있어 대홍단벌의 감자농사에서는 전환이 일어났으니 대홍단의 감자꽃바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결심에 따라 마련된 선군조선의 새 풍경이다.

범안리의 선경

선군8경에는 범안리의 선경도 속한다. 범안리는 조선의 황해북도 서흥군의 남서부에 위치하고있다.

한마리의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같기도 하고 또 기러기를 많이 볼수 있다고도 하여 범안리라고 이름지어진 이 마을은 여러 낮은 산들이 군데군데 솟아있는 구릉지대로 되여있다.

범안리는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하고 산뜻한 기와집들이 줄당콩넝쿨과 갖가지 아름다운 꽃속에 묻혀있고 회관, 탁아소, 유치원, 리발소를 비롯한 문화후생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있다.

양어장입구에는 이 고장 사람들이 샘줄기로 자랑하는 원소가 있다. 물온도가 겨울에는 12℃, 여름에는 13℃인 이 원소의 샘물이 흘러드는 양어장에서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펄펄 뛴다.

양어장 량옆에는 새파란 지붕을 떠인 집짐승우리들이 보기좋게 있고 뚝길을 따라 버드나무와 관상용 뚝나무들이 우거져있다.

마을 뒤산은 갖가지 과일나무들로 뒤덮여있고 리의 북부경계지역으로 흐르는 서흥강에는 범안발전소가 들어앉아있다. 자동수문이 도입되고 발전기도 특이하게 설치된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 범안리사람들은 밥도 짓고 난방도 보장하면서 문화정서생활을 즐긴다.

주체90(2001)년 7월 11일 어둠이 채 가셔지지 않은 이른 새벽 범안리를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름다운 마을풍경을 부감하시며 무릉도원이 따로 있는것

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이고 사회주의선경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선군9경부터 선군12경까지

선군9경은 조선의 선군시대에 펼쳐진 류다른 콩풍경을 말한다.

새로 태여난 류다른 콩풍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바쳐오신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결정체이며 그이께서 직접 이름지어주신 풍경이다.

주체96(2007)년 12월 어느 한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후방시설들을 돌아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콩창고에 콩가마니들이 쌓여있는것을 보시고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선군8경에 콩가마니들이 쌓여있는 새로운 풍경을 더 포함시키면 선군9경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으며 다음해 1월 또다시 인민군부대를 현지시찰하시는 과정에 콩창고를 보시고 해방후 조선의 농촌들에 현물세창고는 있었어도 콩창고는 없었다고, 인민군부대, 구분대들에 있는 콩창고는 선군시대의 산물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콩농사에서도 인민군대가 온 나라의 앞장에 서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인민군군인들은 콩농사를 알심있게 함으로써 창고마다에 콩마대를 그득히 쌓아놓고 다양한 콩음식으로 식생활을 높여 고향의 부모들이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튼튼한 체력을 가지게 되였다.

인민군대의 일본새가 온 나라에 일반화됨으로써 조선에

서는 콩농사에서 보기드문 풍작이 이룩되게 되였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볼수록 흐뭇한 콩작황을 두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응결체라고 하면서 선군9경으로 널리 자랑하고있다.

선군10경은 조선의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의 풍요한 가을풍경을 말한다.

주체98(2009)년 10월 8일 또다시 미곡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농장의 가을풍경에서 이윽토록 시선을 떼지 못하시다가 미곡협동농장의 가을풍경이 정말 멋있다고, 미곡벌의 가을풍경은 조선의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의 위대한 생활력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미곡협동농장은 말그대로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 사회주의선경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선군시대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경치가 선군9경으로 불리우고있는데 이 농장의 풍요한 가을풍경까지 포함시켜 선군10경으로 불러야 할것 같다고 하시였다.

산기슭마다에 즐비하게 새로 일떠선 살림집이며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면서 벼단을 실어나르는 뜨락또르들, 바람결에 실려오는 구수한 낟알향기와 과일향기…

미곡협동농장의 가을풍경을 바라보느라면 살기좋고 문명한 사회주의선경으로 전변된 조선의 농촌의 래일이 안겨와 흐뭇한 심정을 금할수 없다.

선군11경은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풍경을 말한다.

종이우에 자로 금을 그은것 같은 규격포전들이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져있고 병사들이 사열을 받듯이 하얀 과일나무지지대들이 일매지게 줄지어선 광경이며 별장이나 휴양

각갈은 살림집들은 조선의 선군시대 과수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희한한 절경이다.

주체98(2009)년 11월 29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였다.

시종 만족을 금치 못하시던 그이께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만점짜리 기념비적창조물이라고 하시며 조선에 선군10경이 생겨났는데 이제는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풍경까지 포함하여 선군11경이라고 해야 할것 같다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풍경은 선군11경의 하나로 될수 있다고 하시였다.

오늘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은 눈뿌리 아득하게 펼쳐진 과수밭과 희한한 살림집들뿐아니라 현대적인 과일가공기지들과 축산기지들을 갖춘 선군시대의 새로운 절경으로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으로 되고있다.

선군12경은 룡정의 양어바다풍경을 말한다.

마를줄 모르는 룡정원소의 물, 그 주변에 사열을 받는 열병대오를 방불케 하듯 주런이 전개되여있는 여러 형식의 야외양어못들, 철갑상어알깨우기실, 물려과장, 배합먹이가공장, 단백먹이가공장, 종합지휘실…

이 모든것이 정신이 번쩍 들고 희한하며 감탄이 절로 나오는 룡정양어장의 풍경이다.

룡정양어장은 현대화, 과학화수준도 높다. 종합지휘실에 설치해놓은 현시판을 통하여 야외양어못들의 물량, 페하, 산소량, 물고기들의 생리상태를 실시간적으로 장악할수 있게 하였으며 산소보장과 먹이공급에 대한 자동지령체계를 세워놓았다.

야외양어못들에서는 철갑상어, 칠색송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떼지어다니며 야외원형못들에 있는 철갑상어들은 크고 멋있어 20kg정도 되는것도 있고 40kg, 60kg정도 되는것도 있는데 어찌보면 소형잠수함 같다.

철갑상어들이 꼬리를 흐느적이며 유유히 헤염쳐다니는것은 볼수록 희한하다.

양어장에는 미꾸라지못도 꾸려져있고 단백곤충서식장과 우렝이알깨우기장도 꾸려져있다.

주체99(2010)년 11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건설한 룡정양어장을 돌아보시였다.

그이께서는 전망대에서 바라보니 룡정양어장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이 일대가 천지개벽되였다고, 숲이 무성하고 꽃이 피는 계절에는 룡정양어장의 풍경이 정말 멋있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와 더불어 길이 전할 룡정의 양어바다는 선군12경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종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선언하시듯 말씀하시였다.

…룡정양어장은 혁명적군인정신이 낳은 선군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입니다…

× × ×

조선의 찬란하고 유구한 력사를 보여주는 절경들은 오늘 선군시대에 펼쳐지는 사회주의선경들과 더불어 인민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락관을 안겨주는 조선의 자랑으로 되고있다.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줄기찬 투쟁에 의하여 곳곳에서 눈부신 변혁들이 일어나고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 있는것이 오늘 조선의 현실이다.

조선에서는 앞으로도 만사람의 찬탄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는 사회주의절경들이 계속 새롭게 펼쳐질것이다.



백두산천지



백 두 산



백두산의 장군봉



백두산의 향도봉



백두산의 사자봉



삼 지 연



금강산의 집선봉



금강산의 삼선암



금강산의 세지봉



금강산의 귀면암



금강산의 상팔담



금강산의 만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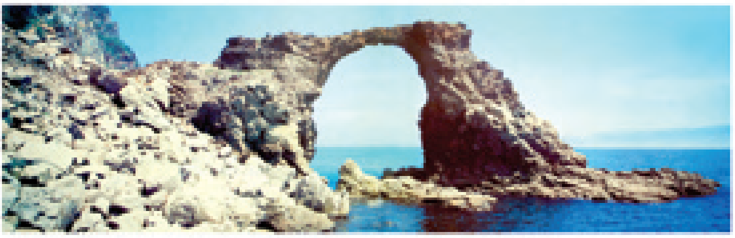
삼 일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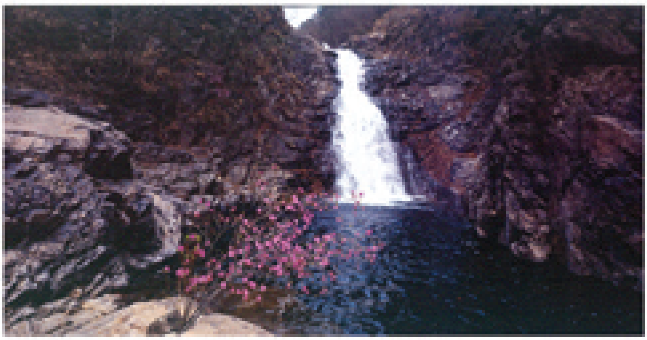
해금강의 총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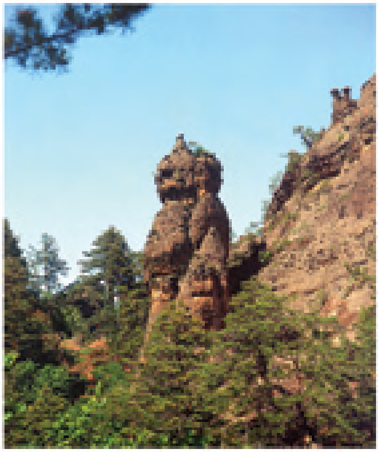
내 칠 보



해칠보의 달문



외칠보의 농인폭포



내칠보의 부부바위



외칠보의 로적봉



겨울의 묘향산 산주폭포


단풍든 상원동


묘향산의 인호대



평양의 대동강



모란봉 을밀대의 봄



평양의 련광정



회령의 백살구



백두산의 해돋이



다박솔초소의 설경



절령의 절쭉



장자강의 불야경



울림폭포의 메아리



한드레벌의 지평선



대홍단의 감자꽃바다



범안리의 선경

조선의 절경들과 유래

집 필: 박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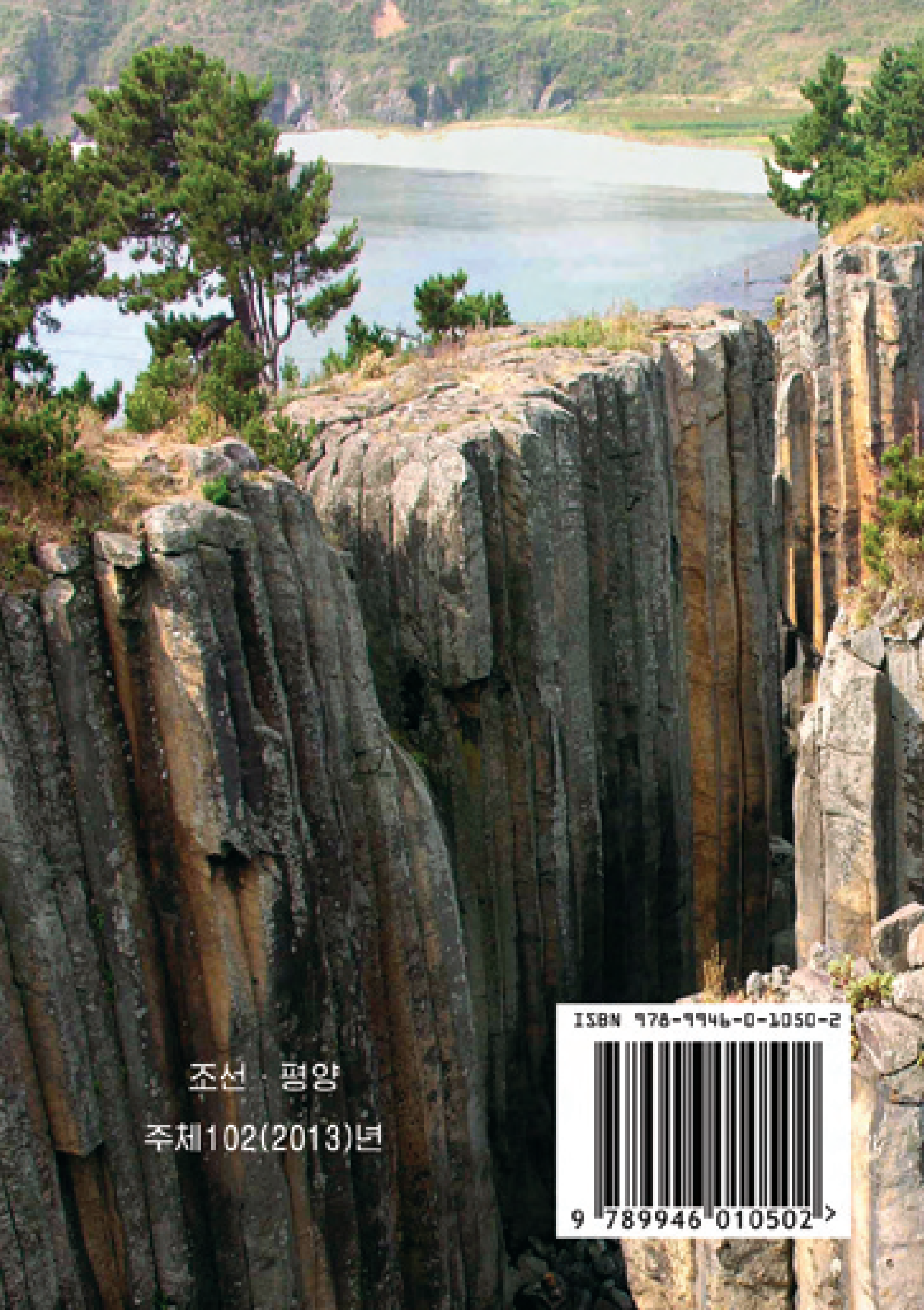
편 집: 탁성일

낸 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발 행: 2013년 5월 30일

ㄱ-35093

전자우편(E-mail):flph@star - 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2(2013)년

ISBN 978-9946-0-1050-2

9 789946 010502